Governance

ESG 경영에 있어서 G(거버넌스)는 ESG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자 기본입니다. 견고한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에 부합하는 선진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4.1	이사회 책임 경영
4.2	주주 친화 경영
4.3	윤리·준법 경영
4.4	리스크 경영

이사회 책임 경영

현대자동차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 다양성 및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더 나은 거버넌스 체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 정관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책임 경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현황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회계, 금융, 법률, 거버넌스,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사의 임기

2024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총 12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6년이며, 한국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에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3명(재선임 2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2명(재선임 2명)입니다.

이사의 선임

현대자동차의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됩니다. 당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및 겸직 제한

현대자동차는 국제적 표준을 적용한 엄격한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 및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집행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타기업 겸직을 허용 받기 위해서는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가이드라인

현대자동차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이사회에는 2명의 외국 국적 이사(Jose Munoz, Eugene M. Ohr)와 2명의 여성 이사(이지윤, 최윤희)가 있습니다. Jose Munoz 이사는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Global COO)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실적 향상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진 오 사외이사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자산 운용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선임되었습니다. 이지윤 사외이사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능형 교통 및 자율 무인 시스템 안정성 보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자율주행기술과 UAM(Urban Air Mobility)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당사의 미래 핵심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교수는 법무 전문가로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노사관계 관련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성별	국적
사내이사	정의선[1)]	대표이사 회장	現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2010.03.12	남성	대한민국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現 현대자동차 담당사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동석	대표이사 사장	現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2022.03.24	남성	대한민국
	호세 무뇨스	사내이사 사장	現 현대자동차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본부장		2023.03.23	남성	미국·스페인
	이승조	사내이사 전무	現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2024.03.21	남성	대한민국
사외이사	윤치원	사외이사	前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		2019.03.22	남성	대한민국
	유진 오	사외이사	前 Capital International, Inc. 파트너		2019.03.22	남성	미국
	이상승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19.03.22	남성	대한민국
	심달훈	사외이사	現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지윤	사외이사	現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前 미 항법학회 이사	2021.03.24	여성	대한민국
	장승화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2023.03.23	남성	대한민국
	최윤희	사외이사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23.03.23	여성	대한민국

* 2024년 3월 21일 기준 1) 이사회 의장

이사회 역량구성표

역량 지표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의선	장재훈	이동석	호세 무뇨스	이승조	이상승	윤치원	유진 오	심달훈	이지윤	최윤희	장승화
리더십	●	●	●	●	●	●	●	●	●	●	●	●
회계/재무/경영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법률/정책			●		●	●			●		●	●
글로벌 역량	●	●		●	●		●	●	●	●		●
ESG	●	●	●		●	●	●	●			●	●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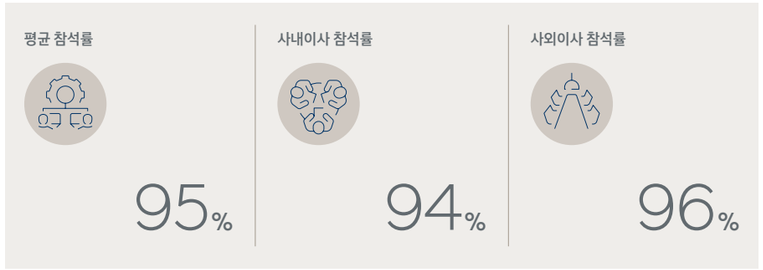
이사회 소집 및 개최

이사회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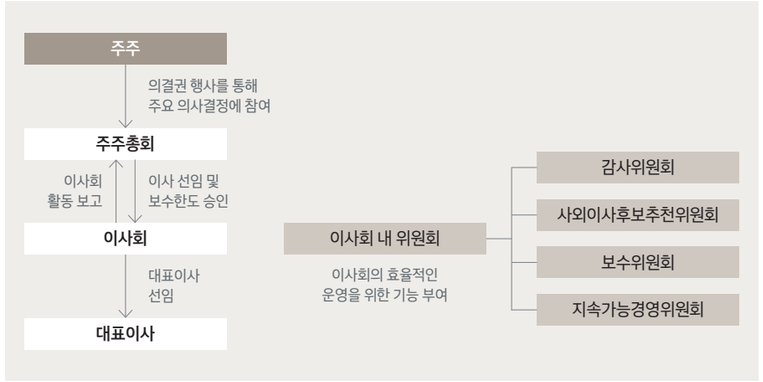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소집 시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하며,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2023년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일자	내용	가결 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01.26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수정 가결	100%	100%
		제5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10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가결	100%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가결	100%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국내 인증중고차 사업 추진 계획, 해외 생산법인 증자 참여, HTWO광저우 합자법인 설립 계획	보고	-	
임시	02.22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전자투표제 실시 연장 승인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현대캐피탈 캡티브 금융 중장기 사업 전략	보고	-	
임시	03.23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가결	100%	100%
		이사 경업 승인의 건(서강현 이사: 현대캐피탈·현대카드·현대커머셜, 장승화 이사: (주)LG, 최윤희 이사: 한진칼)	가결	100%	
2차 정기	04.25	타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100%	92%
		해외 합작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Supernal 사업 추진 현황 및 투자 계획	보고	-	
임시	05.24	해외 합작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가결	100%	92%
3차 정기	07.26	제56기 2분기 배당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변경 선임의 건	가결	100%	
		2023년 2분기 경영실적, 글로벌 차량 안전현황, 안전보건 주요 현안 발생	보고	-	
임시	08.29	타법인과의 전략적 협업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 보호기준 제정의 건	가결	100%	
임시	08.30	해외 계열회사 주요 경영사항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4차 정기	10.26	제56기 3분기 배당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배터리사 신공장 건설비용 대여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임시	12.19	이사 경업 승인의 건(서강현 이사: 현대제철)	가결	100%	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임시	12.19	HMMR 지분매각 승인의 건	가결	100%	67%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및 활동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사외이사에 의한 자체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정기적으로 독립된 제3자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사회의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산업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최종 제3자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들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사회 전문성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비즈니스, 회계, 금융, 법무,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정기 방문 및 주요 부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치원 사외이사와 최윤희 사외이사는 각각 주주권익 보호 및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지윤 사외이사는 당사 경영진과의 미래기술 관련 면담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제56기 주주총회에서 AAM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등 당사 사외이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교육

현대자동차는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사업현황, ESG 정보공시 규제,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 신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자동차산업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전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고객의 가치 소비 가속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자동차는 CEO 직속 조직으로 리스크 전담 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여, 공급망을 비롯해 완성차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내외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관리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최윤희 사외이사를 준법경영 담당으로 지정하여,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임원 대상으로 준법자가점검, 준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 내 준법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리

현대자동차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감독 하에 주주권익의 보호,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관련 정책, 윤리규범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과 심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회사 윤리헌장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리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글로벌 환경 이슈 및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경영을 구축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 전략, RE100 로드맵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기후변화 이슈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 및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국내외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부규제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현대자동차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사회 교육 현황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여 이사
01.26	제네시스 디자인 방향성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04.25	현대차 리스크 대응체계 및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04.25	EV 중장기 사업 전략	
07.26	현대차 전략투자 현황	
10.26	ESG 정보공시 규제 심화에 따른 기업 차원 대응 방안	
10.26	중국 업체 대비 경쟁우위 확보 방안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보수 지급

이사 보수지급 기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내이사는 내부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준으로 직무, 직급, 리더십, 회사 기여도, 인재육성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상여는 성과 인센티브를 기초로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등) 및 기여도 등을 기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별도 경영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보수는 직급 및 직책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기본연봉과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본연봉은 당사의 경영진 보상 체계(Table)에 따라, 직위급과 직책급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책정되며, 경영진 보상체계는 산업 환경, 사업 규모, 동종업계의 보상 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3~4년 주기로 설정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연봉의 0~20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는 재무실적(50%)과 주요 KPI(50%)를 반영하고, 일반 경영진의 성과는 주요 KPI(40%)와 MBO(50%), 그리고 정책 관련 항목(10%)을 반영하여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KPI 평가에는 대내외 ESG 평가결과 및 ESG 중점 개선과제 수행 성과 등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분	CEO	일반 경영진
기본연봉	경영진 보상 체계에 따라 직위급 + 직책급 합산하여 개인별 책정	
성과 인센티브	회사재무/사업실적 합산 → 성과 인센티브 등급	조직성과/개인성과/정책지표 합산 → 성과 인센티브 등급
	재무실적 (50%) + 회사 KPI (50%) = 성과 인센티브 등급	KPI (40%) + MBO (50%) + 정책 (10%) = 성과 인센티브 등급
	매출액 30% 손익 70%	재무지표 35% 사업전략지표 45% 지속경영지표 20% 공통지표(가감점)	S/A/B/C/D	부문별 주요 KPI 평가 결과* * ESG 포함	KPI 외 연간 성과목표 - 전략 목표 - 업무 목표 - 인재육성 목표 - 기타 등	Culture Survey 현장관리력 등	S/A/B/C/D

보수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CEO[1]	이사회[2]	사외이사	직원	CEO-직원 보수 비율
1인당 평균 보수액	3,894	1,464	115	117	33배

*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3년 사업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1] CEO: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기준
[2]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 포함 기준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서 선임되어야 하고,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명은 회계·재무 전문가의 선임을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명(윤치원, 이상승, 심달훈)은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오랜 기간 세무전문가로 재직한 심달훈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 감사 조직과는 다른 시각에서 당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법무, 금융, 회계·재무, 미래기술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관련 주주총회 보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윤치원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전문분야	경영·금융	경제·거버넌스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비감사용역 승인 현대자동차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행되고, 활동 중 확인된 중요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내역

사업연도	계약일	용역내용	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 원)
제56기	2022.06.23	한-캐나다 APA 갱신 자문 업무	2022.08.05~타결시까지	150
	2023.12.20	한-스페인 상호합의 및 쌍방 APA 지원	2023.12.20~타결시까지	180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구성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이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윤치원	심달훈	이승조
전문분야	경영·금융	재무·회계·세무	재경·전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성명	유진 오	이상승	최윤희	정의선	장재훈
전문분야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거버넌스	법무	경영전반 총괄	경영전반 총괄

이사회 책임 경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투명경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기존에 4명으로 구성되었던 투명경영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윤치원 사외이사는 UBS 자산관리부문(Wealth Management)에서 재직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의 주주환원가치 및 자본배분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ESG 경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 점검,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 및 주주소통 확대 노력, 임직원 관련 윤리적 이슈 점검 등 내외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전문분야	경영·금융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거버넌스	재무·회계·세무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이지윤	장승화	최윤희	장재훈
전문분야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법무	경영전반 총괄

2023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일자	내용	가결 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01.26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2023년 사회공헌 주요활동 계획 승인의 건	가결	100%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 증여 승인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8건): 2022년 하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사항 및 추진계획 등	보고	-	
임시	02.22	보고사항 (1건): 공급망 ESG 이슈	보고	-	100%
임시	03.2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100%	100%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3건): 2023년 ESG 추진 방향, 임원 성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이사회 제3자 평가결과	보고	-	
2차 정기	04.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100%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승인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3건): 2023년 1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2023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3년 1분기 준법지원 활동 내역	보고	-	
임시	06.13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보고사항 (1건): 중장기 전동화 전략 및 재무 목표	보고	-	
3차 정기	07.26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7건): 2023년 상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3년 상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등	보고	-	
임시	08.29	보고사항 (2건): 해외 계열회사 주요 경영사항, 한국경제인협회 회원 가입 관련 현황	보고	-	100%
4차 정기	10.24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88%
		계열회사와의 거래(브랜드사용료)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와의 거래(계동사옥 임대) 승인의 건	가결	100%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 승인의 건	가결	10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심의의 건	가결	100%	
		보고사항 (5건): 2023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진행 현황, 수소연료전지 사업 양수도 추진 현황 등	보고	-	

주주 친화 경영

현대자동차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NDR 등의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식발행 현황

현대자동차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274,169,670주이며, 보통주 211,531,506주, 우선주 62,638,16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1주의 액면가액: 5,000원)이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보통주 외에 3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선주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우선주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 수	발행주식 수	비고
보통주		450,000,000	211,531,506	의결권 있음
우선주	우선주	150,000,000	24,113,119	의결권 없음
	2 우선주		36,120,597	의결권 없음
	3 우선주		2,404,448	의결권 없음

* 2023년 말 기준

주주총회 소집 및 통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주주회의를,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회의를 소집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1주 1의결권 부여)

현대자동차의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그 소유 주식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및 위임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혹은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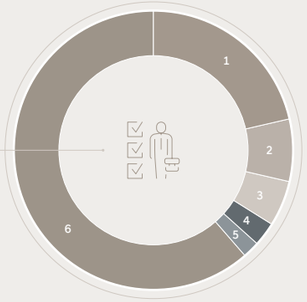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시 안건별 찬반 주식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개별 안건 상정

현대자동차는 이사의 선임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합계
211,531,506



주주명	종류	지분율 (%)	주식 수
1 현대모비스	보통주	21.64	45,782,023
2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7.13	15,075,239
3 정몽구	보통주	5.39	11,395,859
4 정의선	보통주	2.65	5,598,478
5 우리사주조합	보통주	1.86	3,937,894
6 기타	보통주	61.33	129,742,013

* 2023년 말 기준
** 정부기관 보유 지분 중 황금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 수는 최근 소유자 명세(2023년 말 기준) 등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주식 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2024. 03.)

부의 안건			가결 여부
재무제표 승인	제1호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이사 선임	제2-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심달훈)	원안대로 승인
	제2-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재훈)	원안대로 승인
	제2-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동석)	원안대로 승인
	제2-2-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승조)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지윤)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달훈)	원안대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주주 친화 경영

주주와의 소통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설명회 정보 및 일정

현대자동차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 1분기, 상반기, 3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경영실적발표부터 모든 주주들의 IR 접근성 제고를 위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는 웹캐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Non Deal Roadshow(NDR)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도 참여하여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목표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최고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시

현대자동차의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DART, KIND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22건의 공정공시와 4건의 자율공시를 포함하여 총 210건의 공시를 제출하여 회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영문공시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영문공시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부터는 중장기 재무목표와 전략을 공시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과 기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당사의 ESG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기업 정보 제공, 경영 가이던스 제시,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공개 확대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

현대자동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공시를 통해 향후 연간 Free Cash Flow의 30~50% 수준을 주주환원으로 활용 추진, 중장기적 배당성향은 글로벌 경쟁사 수준 지향, 추후 경영환경 감안하여 현저한 수준의 배당 감소나 증가 시 사유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더욱 투명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4월 25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배당의 가시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25% 이상의 배당성향(우선주 포함)을 달성하고,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 수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향후 3년간 1%씩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신뢰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당 실시를 결정한 이사회 당일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결산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5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5일 결산배당금을 공시하고 배당의 지급기준일은 그 이후인 2월말로 설정하여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주환원 현황

사업연도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배당성향	
			주당 배당금 (원)	총 배당금 (백만 원)	시가 배당률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3년	보통주	-	11,400	2,320,806	4.7%	25.1%	40.8%
	우선주	-	11,450	251,054	7.4%		
	2 우선주	-	11,500	399,821	7.3%		
	3 우선주	-	11,450	26,975	7.5%		
2022년	보통주	-	7,000	1,412,321	4.5%	24.9%	49.4%
	우선주	-	7,050	154,579	8.8%		
	2 우선주	-	7,100	246,846	8.8%		
	3 우선주	-	7,050	16,609	9.1%		
2021년	보통주	-	5,000	999,057	2.4%	26.3%	201.5%
	우선주	-	5,050	111,365	5.0%		
	2 우선주	-	5,100	178,275	4.9%		
	3 우선주	-	5,050	11,961	5.2%		

윤리·준법 경영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준법지원 온라인 시스템, 자가점검, 가이드라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확산

윤리경영 헌장

현대자동차는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윤리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5대 윤리경영 헌장은 임직원이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윤리경영 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천규범은 부패 및 뇌물, 차별, 정보 비밀 유지, 이해관계 상충, 독점 금지 및 반경쟁적 관행, 자금세탁 및 내부거래, 환경, 보건 및 안전,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부패/뇌물금지 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은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부패 및 뇌물 관행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급행료를 근절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선기부 및 후원에 대한 내부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 필요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임직원 성과관리 및 승진 (윤리/준법) 현대자동차는 직원 역량평가에 직장 내 윤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평가 요소에는 인재존중, 규범준수가 포함되며, 리더 대상 역량평가에는 원칙과 소신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직원 승진 심의 시 윤리/준법 관련 중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승진 공통 심의항목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징계제도 운영 (윤리/준법) 현대자동차 직장윤리규정 제11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에 의거, 윤리규범 위반자는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 리스크 감사·제보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내 준법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 업무를 지원하고 법 위반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 정착 및 실현을 목표로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제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 금전·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등 윤리경영 위배 행위 제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취업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최대 해고에 이르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직장윤리규정 내규에 임직원 윤리 및 준법 관련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로는 내부신고자 및 관련 정보 비밀 유지, 불이익 처분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 신고자 보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직장 윤리규정 3장 9조(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보자 보호조치

1. **비밀 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2. **신분 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3. **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

실천규범 내재화

현대자동차는 정기적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임직원의 행동강령 내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및 사내방송을 통해 반부패, 공정거래, 사이버 보안 등 주요 윤리 이슈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 이행의 총괄 감독과 더불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실천규범 개정 관련 의결은 2021년 3월 확대 개편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천규범 이행실태 조사

현대자동차는 2023년 부패 및 뇌물수수, 차별 및 괴롭힘, 고객정보, 이해관계 상충, 자금세탁, 내부자거래 관련 총 10건에 대해 징계(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분	징계 건수
부패 또는 뇌물 수수	3
차별 및 괴롭힘	7
고객정보	-
이해관계 상충	-
자금세탁 또는 내부자거래	-

주요 제보 채널

사이버 감사실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

전화 제보

+82-2-3464-3500

팩스

+82-2-3464-8813

서신 접수

현대자동차그룹 감사실

윤리·준법 경영

준법경영·준법지원제도

현대자동차 준법경영

준법경영이란 회사가 경영 및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범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2012년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상법상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준법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준법통제 규정·정책 준법통제기준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을 근거로 준법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두어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반부패/뇌물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을 두어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조직 현대자동차는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역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임명하여 이들이 소속 부서의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반부패, 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 영역에 관해 부서별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스스로 업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리스크를 각 부서에 안내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세분화된 개인별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정거래 유관부서인 구매,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약관규제, 하도급법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자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특성을 고려한 자가점검 문항을 개발하여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

준법가이드라인 배포 현대자동차는 업무영역별 약 40여 종의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를 업데이트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최근 심결례 및 판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행동지침과 자가점검리스트, Q&A를 추가하여 임직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법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신규 입사자, 승진자, 보직자, 해외 주재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 직원 대상 카르텔(담합) 온라인 준법교육, 신임 팀장·책임 대상 정보교환, 하도급법 규제 등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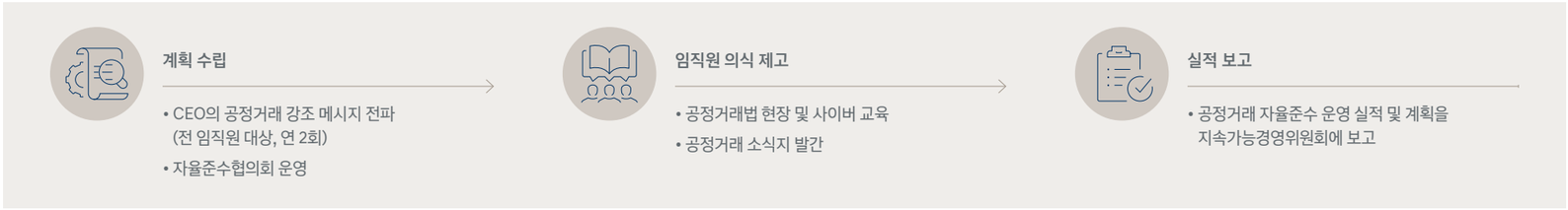
준법문화 확산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 및 콘텐츠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준법 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별 표준계약서(국문 계약 30개, 영문 계약 20개)를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준법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 실천서약 참여를 독려하고, 준법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법적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설계 및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을 제작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정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정기 소식지 발송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공정거래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부서특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매부서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국내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의 개념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격월로 부당한 공동행위, 영업비밀보호,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이슈를 소개하는 준법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연 3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현황

연도	교육 횟수 (회)	참여 인원 (명)
2020년[1]	3	8,456
2021년[1]	4	8,261
2022년	4	1,779
2023년[2]	16	3,212

[1] COVID-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진행
[2]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방송(2회) 시청인원 및 뉴스레터 수령인원 제외

반부패 및 공정거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윤리행동 지침서에 리베이트를 포함한 뇌물 및 관행적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위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반부패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등 부당업무처리 방지, 부당지원행위 관련 자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리스크 경영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와 같은 핵심 기술 내재화와 ESG 리스크 및 경영 리스크 증대로 인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3년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였으며 임직원 대상 핵심 리스크 지표와 연동된 성과 평가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들이 리스크 식별·평가·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전사 경영전략, 전기차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미래 리스크 요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영역에서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사 ESG 리스크 대응과제 추진방안과 이행 현황도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인권 및 환경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사업장 ESG 실사 체계 구축 등 7개 리스크 대응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도 지속가능위원회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기획과 재경본부를 총괄하는 CFO가 전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전략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월 단위로 경영전략회의를 소집하여 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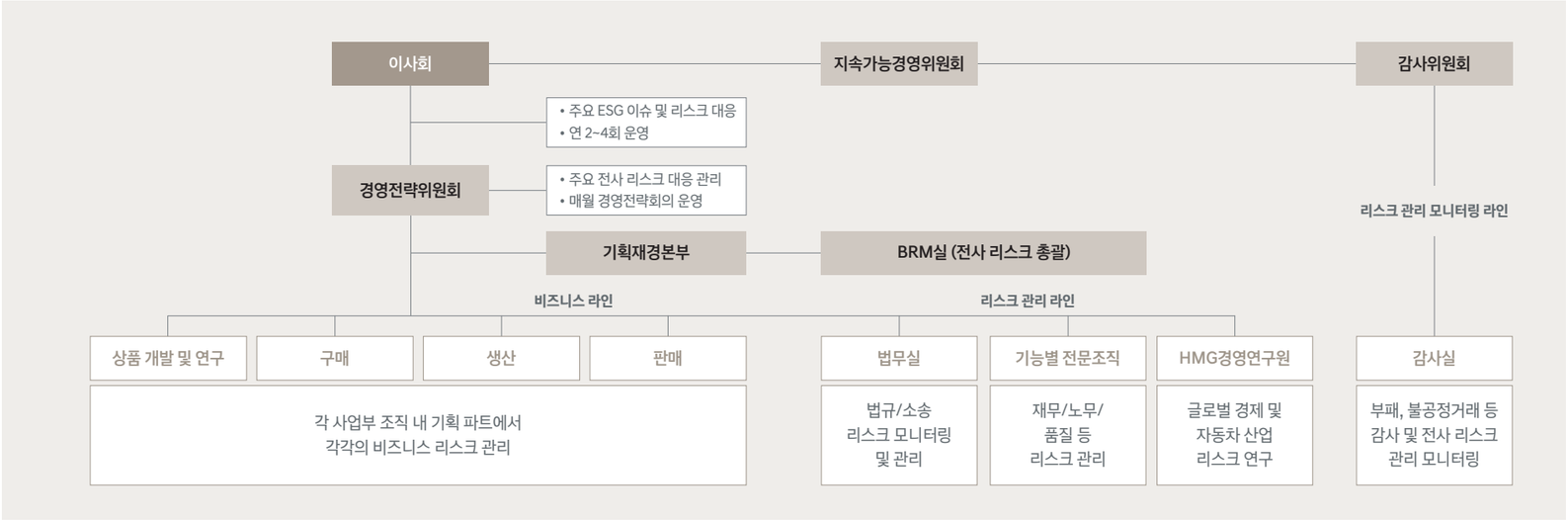
전담 조직 2023년 신설된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본부 내 선정된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 중심으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직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은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효과성,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부별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차원 외에도 본부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별(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로 구성된 본부 내 기획팀에서 리스크 담당자가 선정되어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미주, 유럽, 인도 및 아시아, 중국 등 권역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내 기획담당 조직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에서 발생되는 시장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별 사업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스크 관련 조직에는 법규 및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무실, 재무·노무·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능별 전문조직, 거시·미시 시장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는 경영연구원이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에서는 부패, 불공정 거래 등 리스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부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직원 리스크 식별·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확인된 리스크는 주·월·상시 리스크 점검회의를 기반으로 식별·점검하며, 보고 및 선제 대응하는 순서로 관리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슈의 경우, 판매생산 회의, PM(Product Management, 신차개발 총괄)·상품전략 회의 등 별도의 리스크 점검 회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리스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경영

리스크 대응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안전,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경영 강화, 제품 및 사업구조의 전동화 전환,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안전경영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리스크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는 자사의 경영 전략인 '2025 전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전기차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시장 경쟁 심화, SDV(Soft Defined Vehicle) 기반 혁신 가속화 등의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도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포함한 전기차 경쟁 우위 확보, SDV 기반 제품 혁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EV 이용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솔루션 제공 및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미래 전략을 기반으로 전기차와 SDV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시장 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리스크 점검 체계

현대자동차는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리스크를 점검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현업 대응체계 및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흡하거나 부재할 경우, 리스크 대응 내부 조직간의 R&R를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생가능성이 높고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대 리스크를 선별하여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매달(연간 12회) 점검하고 리스크로 인한 영향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하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업활동 제약, 재무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리스크 사전 예방과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주요 ESG 리스크와 당사 대응 과제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받고 있으며, 대응 과제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은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등 효과적인 내부 리스크 점검 및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감사 체계 외에 배터리 핵심소재 구매 전략과 구매 프로세스 등 내부 리스크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에 대해 컨설팅 기관을 통한 외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지표 연동 보상 체계

CEO 등 C레벨의 경영진들의 KPI에 글로벌 손익 관리 등의 재무 리스크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 점유율, 신차 품질문제,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KPI 지표를 기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가 매년 시행되며, 성과 평가 결과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포함 보수 체계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특히 CFO의 경우 글로벌 손익 및 매출액, 현금 유동성 등 재무적 리스크 지표와 더불어 시장 점유율과 같은 시장 리스크 지표, 전기차 판매 확대, 가격 경쟁력(원가 절감), 주가 및 ESG 평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들도 CFO의 KPI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규제 준수, 미래사업 관련 인재 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차량 리콜 등 주요 리스크 지표들이 각 유관 본부의 KPI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당 본부의 성과 평가는 KPI 기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 평가결과는 본부장뿐 아니라 사업본부 임원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각 본부의 팀장 및 팀원의 성과평가 목표 입력 시 KPI 지표는 임원의 목표와 연계되어 해당 본부 임직원의 성과 및 보상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승인시 리스크 점검

현대자동차는 제품개발 및 승인 단계별 리스크 기준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본 성능 점검부터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각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점검 기준은 크게 연구소와 생산공장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측면에서는 '제품 기능 오작동 리스크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연구소 내 Proto 차량 제작 및 검수'와 '차량 양산 가상환경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되며, 생산공장 측면에서는 '실제 공장 내 양산 환경 조건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 '대량생산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됩니다. 4가지 리스크 기준 점검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교육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사업 현황, ESG 리스크, 다양성, 신사업 관련 리스크 등의 주제로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현대자동차 리스크 대응 체계 및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EV 중장기 사업 전략, 전략투자 현황, ESG 정보공시 규제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기업 차원 대응 방안, 중국 업체 대비 경쟁우위 확보 방안, 제네시스 디자인 방향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전사 대응 전략인 '2025 전략'을 기반으로 미래 리스크 대응 방향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2025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전략에 대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롭게 부각하는 ESG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 규제(EU CSRD, ISSB) 등 새롭게 제정되는 ESG 관련 규제들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주요 리스크 동향을 다룬 'Weekly B.I. Briefing(리스크 동향 보고서)' 등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하는 등 리스크 관리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현황

리스크 선호도 결정 프로세스 및 검토 결과

현대자동차는 기획재경본부 내 BRM실에서 리스크 규모(당사 비전과 목표, 미래 경영전략, 시장 내 입지, 재무적 능력을 포함한 리스크 부담 능력, 잠재적 손실 또는 이득 규모 등을 기반으로 결정) 및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리스크 선호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전략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전기차 확대 전략 등 미래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전사 전략을 결정하고 있으며, CEO Investor Day를 통해 전략 내용을 대외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명확한 이득 및 보상 기회를 제공하는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안전보건 리스크, 사이버 보안 리스크 등 임직원, 가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핵심시장인 미국 전기차 확대 전략과 이 법안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선호 여부가 평가되었으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전기차공장,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위반이나 과실, 법률 및 규정 위반, 사기, 뇌물수수, 부패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리스크 감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비즈니스 활동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규제 리스크

자동차회사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물론, 제품과 관련된 환경·안전·품질·인증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릿 평균 CO_2 배출규제 및 기업 평균 연비규제의 경우, 해당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2023년 2월, EU의회 의결을 통해 승용차 CO_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55% 감축, 2035년에는 100% 감축하여 EU 내 차량 CO_2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한 바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국의 CO_2 배출규제 또는 연비규제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과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기·중장기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매월 판매실적에 기반해서 규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미달 가능성에 대비하여 판매물량 조정은 물론 누적 크레딧 사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2017년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이 현대자동차 중국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와 같이, 정치·정책과 연관된 리스크는 사업 활동과 재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기차가 미래 이동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에 기반한 배터리 소재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의 자급 자족적인 공급망 구축 등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들이 현대자동차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과 정치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PCO, Policy Coordination Office)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정치·정책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자국 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국 내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포함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국 내 현지 생산비중 증대와 더불어 현지 완결형 생산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회사의 생산 지연이 장기화된 사태와 같이 특정 부품의 수급불안이 전체 생산을 지연시키는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 소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약 6배 많은 전기차의 경우, 최근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광물 수급 부족 등과 같이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광산 개발 증가로 인한 환경 및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 있는 광물 소싱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략 소재와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 추진, 전략 소재에 대한 직접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소재 및 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여 2023년 구매, 연구소, 판매, 재경 등 전 부문이 참여하는 원자재협의체를 신설하여 원자재 관련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6대 원자재 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시황 변동 상시 모니터링과 손익 영향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자동차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거시 경제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품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와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물가급등을 초래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이 고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주요국의 경기부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율이 높고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들은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시경제 및 산업 리스크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전문 조직(HMG 경영연구원)을 중심으로 신차 수요와 연관성이 높은 경기선행지표를 기반으로 경기순환주기와 신차 중장기 수요를 예측·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유럽 경기침체 현실화, 중국 경기불안 심화 등의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생산·판매 조정, 새로운 대체시장 발굴, 신모델 출시 강화 등 전사 대응책을 수립하여 거시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리스크

2022년 시작된 미국의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달러 강세로 인해 주요국들의 화폐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이익의 극대화 및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리스크들에 대한 민감도, 스트레스 분석을 통해 시장 리스크(환·이자·가격),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파생상품 리스크 등이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여 리스크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별 단기·중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차입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 리스크 관련해서는 원화 절상 및 절하 시나리오별로 환 리스크를 파악하여 환헤지 확대, 환손실 만회 방안 등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현황

구분		주요 리스크 내용	리스크 노출도 평가		대응 조치
			발생 가능성[1]	크기[2]	
비재무 리스크	규제 리스크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제품과 사업장 관련 규제(차량 CO_2 규제 등)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	하	상	차량 CO_2 규제 또는 기업평균 연비규제 대응하여 단기·중장기 사업계획에 규제대응 물량 반영 등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 중심의 핵심 원자재 자급자족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 등으로 인한 판매·수출 제한 리스크	중	상	현지 생산비중 증대 및 자급자족적 현지 생산체계 구축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리스크	중	중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 예측력 강화,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 분석 등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조달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리스크, 수급 부족으로 생산 지연·중단 리스크	중	상	전략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 내재화, 전략 소재 직접 구매 확대 등
	운영 리스크	제품·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 사업 운영과 연관된 리스크	중	하	각 본부별 기획부문에서 운영 리스크 파악/분석/대응
재무 리스크	환 리스크	USD, EUR, JPY 등 주요 외화 시세 변동으로 인한 환 리스크	중	중	외환 유입 및 유출 일치 통해 리스크 제거, 원화 절상·절하 시나리오별 분석 통해 환 리스크 관리 등
	금리 리스크	미국 등 주요국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승	중	중	여유 유동성 보유법인 위주 차입 상환 등 재무건전성 제고 통한 금리상승 리스크 대응
	유동성 리스크	현금 유동성 부족 및 시장 리스크 과다노출 리스크	하	중	장단기 자금계획 정교화, 자금조달 체계 구축, 금융자산 듀레이션 관리 등

[1] 발생가능성((Likelihood) 평가 기준: 상(High) 50% 이상, 중(Medium) 25~50%, 하(Low) 25% 미만,

[2] 크기(Magnitude) 평가 기준:
- 양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이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수준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
- 질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전략 및 의사결정을 수반시키는지 여부

잠재 리스크

데이터 공유 관련 규제 강화로 디지털 서비스 경쟁 심화 전망

RISK CONTEXT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는 디지털 기기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은 자동차업체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발효된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데이터 관련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2022년 고객의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해 사용 권한이 IoT(Internet of Things) 제품 제조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현재의 업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인 데이터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발효될 시 현재 데이터 보유자인 제조사는 일정 조건 충족 시 B2C, B2B, B2G 간 데이터 제공 의무를 갖게 되며, 기업 간 데이터 접근·이용 관련 공정한 계약 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의무 부여로 인해 차량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증가함과 동시에 향후 외부업체들과의 차량 데이터 공유로 인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요청 범위 확대로 인해 고객정보 및 영업비밀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문제는 물론 데이터 공유과정에서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안전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EU를 포함한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하였으며, 단기적으로 EU 데이터법에 대응하여 차량 주행 데이터에 대한 공개 가능한 데이터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며 외부와의 공유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이버 보안 및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보유 차량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 약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력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 서비스 개발자들과의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인 '현대 디벨로퍼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대자동차만의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데이터 가공·분석 및 서비스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분야에서의 자체 역량 확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제노동금지 규제 확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증가

RISK CONTEXT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EU 이사회와 의회는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결부된 제품에 대한 EU 역내 유통과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인 강제노동금지법(AFLR, Anti-Forced Labor Regulation) 시행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EU 의회는 법안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시행하였으며, 압도적 찬성(찬성: 555, 반대: 6명, 부재: 45명)으로 본 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부터 법규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제품 업스트림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기업이 소명할 때까지 EU 판매 및 수입 금지되며, 최종적으로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판정될 경우 기업 자체 비용으로 전량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강제노동방지법을 미준수할 경우, EU 역내 판매·수출 중단 리스크는 물론 강제노동 의심 또는 판정 부품의 수입 중단으로 인한 EU 현지공장 생산 지연 및 중단 리스크 등이 우려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준 EU에서 약 62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EU판매차량(현지 생산물량과 국내 수출물량)이 EU 강제노동금지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22년부터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일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일부 부품이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업체의 차량 수 천대의 통관 절차가 보류되었으며, 실제로 부품 조달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EU 강제노동금지법 외 기업 실사법(Corporate Sustainable Due Diligence Directive), 산림벌채금지법(Deforestation Regulation) 등 제품 업스트림 제조과정 내 강제노동과 산림파괴를 금지하는 EU 법규들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 공급망 및 사업장 인권 및 환경 침해 리스크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사전 식별을 위해 2023년에는 리스크 전담팀인 BRM실, 구매본부, 법무실 등이 협업하여 신뢰도 높은 글로벌 공급망 전문 인권 리스크 모니터링업체의 DB 등을 활용하여 강제노동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내 인권 위험도를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점검/평가를 위해 자사 사업장과 자회사 대상 강제노동, 산림벌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과 환경 침해 리스크 점검 및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ESG 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멕시코생산법인, 튀르키예생산법인과 EU 법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체코생산법인 등 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도 진행하였으며,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법규 위반, 관리 미흡 사항들에 대한 개선 조치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국내외 1차와 2차 협력사 대상 서면진단 평가(에코바디스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구성)가 시행되었으며, 서면 평가 점수 기반 리스크 징후 보유 협력사를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조세 의무

조세 전략

현대자동차는 세무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경영의 선제조건이며,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 확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및 국가 재정에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공평 과세 원칙을 존중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과세 당국이 제정한 조세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조세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핵심은 '엄격한 법규 준수'입니다. 당사는 투명한 조세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과세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사실관계 소명 및 증빙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실체가 없는 조세구조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 및 조세피난처 국가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창출된 가치를 낮은 세금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 세법 차이 및 조세 제정 의도를 파악하고 분쟁 소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서, 과세당국 간 과세권 경쟁으로 인한 이중과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 보고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대자동차는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담팀(개인정보보호팀)과 전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보안경영지원실장)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본부·사업부별 주관부서와 담당자, 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은 정책 및 가이드를 수립·배포하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및 점검합니다. 2023년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고객 데이터가 사용된 건수는 0건입니다. 또한, 전사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및 주요 서비스 운영부서가 연 1회 모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안전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관리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운영할 뿐 아니라, 전사 임직원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대상으로 수시·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변경할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침해 요소를 분석하여, 위협을 최소화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신구간 및 고객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고객의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고, 외부 침입에 의해 유출되더라도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과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설치, 백신 프로그램의 주기적 업데이트,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의 외부침입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 및 외부기관 인증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내부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점검 및 수탁사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고객 홈페이지 및 커넥티드 카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해 2020년부터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O/IEC 27001) 인증을 10년 이상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유식별정보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른 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정보 보안

정보 보안 체계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체제로의 전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도화된 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보안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킹 및 정보유출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해 왔으며, 2022년 1월 유럽에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내부 임직원 대상의 보안 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연 1회 검토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향상을 위해 보안정책에 대한 교육 및 보안 뉴스레터, 보안의날 캠페인, 악성메일 대응 훈련 등의 다양한 보안 예방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 취약성 분석

현대자동차는 업무 시스템의 안전한 구축·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고,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안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ISO 27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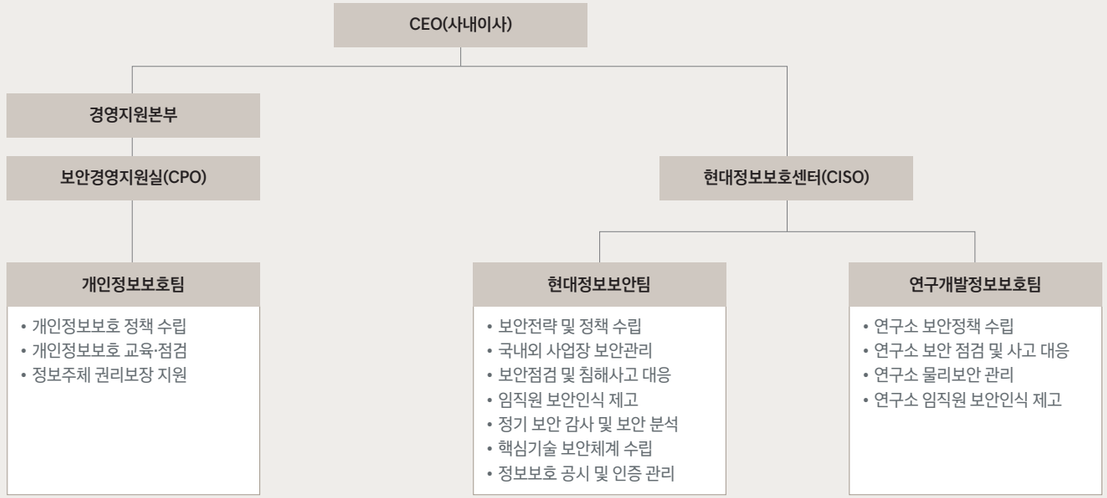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역할

현대자동차는 정보보호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를 현대정보보호센터장으로 지정, 전사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PO)를 보안경영지원실장으로 지정하여 보안정책 수립,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 점검·분석, 사고대응, 해외보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심의위원회

현대자동차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주관의 보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보안심의 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주요 유관 부문(HR, 감사, 법무, 연구소, 생산공장 보안 등) 임원들이 회사보안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연 2회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 보안 관련 활동

- 해외법인 보안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점검활동 강화
- 보안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자체 침투활동 통한 보안 위협대응 강화
- 정보보안 및 비즈니스연속성계획(BCP)에 따른 사고대응 절차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지침' 내 명시 및 상시 점검 수행
- 연 1회 이상 임직원 피싱메일 훈련 및 감염자 악성코드 감염 예방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전 임직원 대상 보안 뉴스레터 배부 및 임직원 보안의날 시행

정보보호 조직 구성